

Daily Auto Check

2022. 9. 22 (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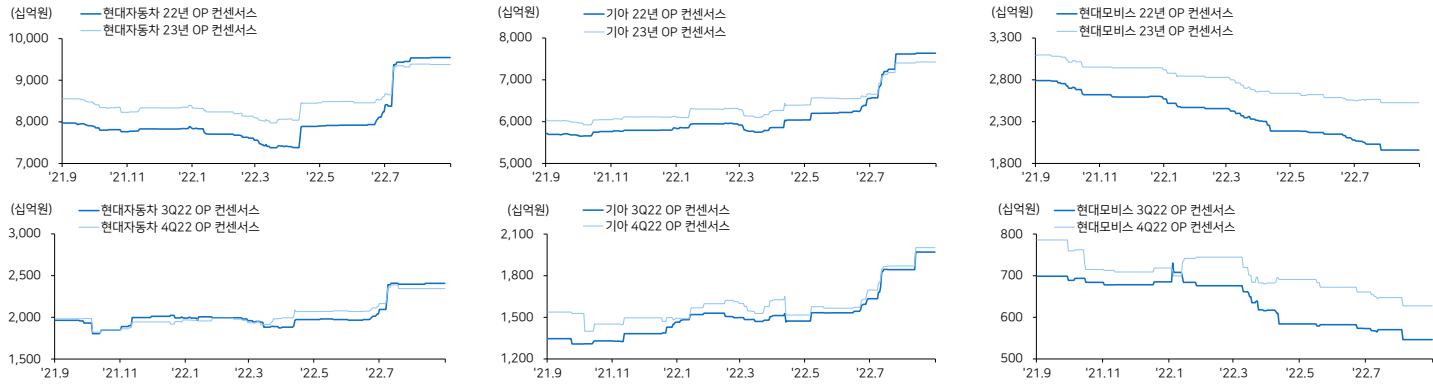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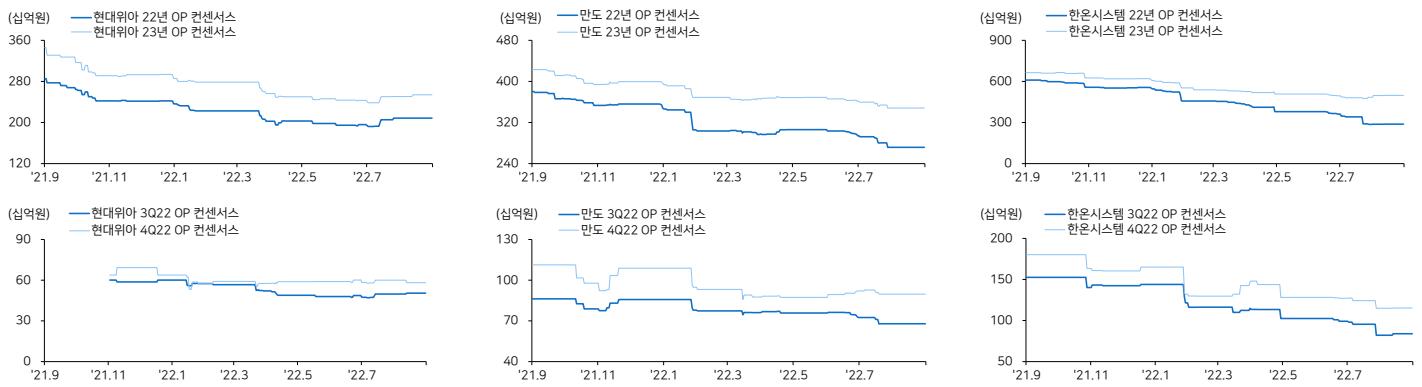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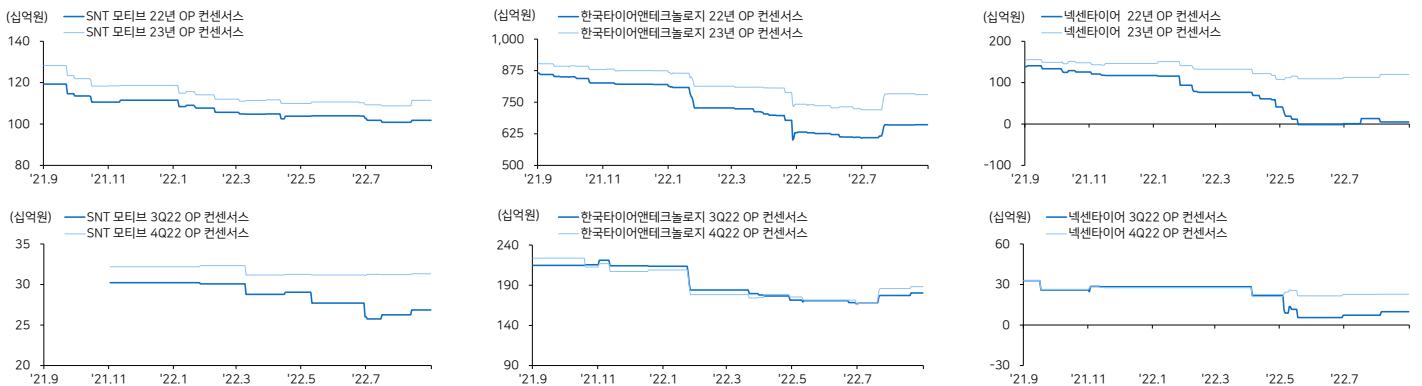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택시로 먼저 나온 아이오닉6… “내구성 자신감” VS. “브랜드 떨어져” (조선비즈)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6의 택시용 물량이 일찍 풀린 것으로 파악됨. EV를 택시로 공급하는 것은 개발 초기에 판매량을 늘리고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전략으로 분석됨. 일반차보다 주행거리가 긴 택시 다양 보급이 내구성을 증명하는 수단.

<https://bit.ly/3r018Xr>

엔비디아 전센 황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큰 소비국” (Byline Network)

엔비디아 CEO 젠센 황은 GTC 2022 Q&A 세션에서 “중국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큰 소비국이며, 중국과 나머지 세계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언급. 엔비디아의 중국 지역 매출은 전체의 24~29%를 차지.

<https://bit.ly/3R6wbEc>

Chipmaker Nvidia launches new system for autonomous driving (Reuters)

Nvidia는 자율주행, ADAS, 인포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집중화할 컴퓨팅 플랫폼 ‘DRIVE Thor’를 출시. 수많은 자동차의 칩과 케이블을 교체하고 시스템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언급. 첫 고객은 Geely의 ZEEKR 모델이 될 것으로 알려짐.

<https://reut.rs/3LxqNjv>

China's Xpeng says CATL is no longer its largest battery supplier (Reuters)

Xpeng은 배터리 공급업체를 다변화. 더 이상 CATL을 주요 공급업체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힘. Xpeng은 2021년 기준 Tesla, NIO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고객이었음. Xpeng은 EVE, CALB와 같은 여러 고품질 배터리 업체와 협력한다고 언급.

<https://reut.rs/3ByqOQI>

폭등하는 정제 리튬 가격… 1년 전에 비해 4배 증가 (조선비즈)

BMI는 ‘탄산리튬이 1t당 7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해 4배 급등한 수준임을 알림.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리튬을 확보하려는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진 것.

<https://bit.ly/3LvPNi6>

현대차, 중국서 3천만원대 전기 SUV 출시…내년 8월 (한국경제TV)

현대차그룹이 내년 8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준중형급 EV SUV 2종을 출시할 계획. 가격은 3,600만 원 선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 가격을 낮추기 위해 E-GMP를 채택하지 않음.

<https://bit.ly/3R180MU>

Auto suppliers raising prices for Ford - and beyond (Reuters)

포드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공급사는 전반적으로 고객에게 가격을 인상하는 중. 여러 공급업체는 에너지, 인건비, 원자재 비용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되어 비용이 들어난 업체가 포드뿐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

<https://reut.rs/3SmIbuF>

Record shipping costs add to automotive supply chain woes (Automotive News)

자동차 산업이 선박 부족으로 인해 또다른 공급망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Clarkson은 자동차, 산업기계를 운송하는 화물선의 운임이 하루 약 8만 달러로 급증,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https://bit.ly/3D0s2Jz>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